

구원의 완성

롬 11:25~32

구원의 완성

오늘 말씀은 개인구원의 차원을 넘어서서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의 결론이라고 말할 해도 좋은 말씀입니다.

‘퍼즐’을 아십니까? 저희 부부는 퍼즐을 종종합니다. 퍼즐을 하다보면 어떤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맞지 않고, 비슷한 것이 여러 개인 것 같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서 한 조각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성은 아닙니다. 남은 한 조각을 끼워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구원의 마지막 조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결코 개인적인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개인적 구원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우주적인 구원으로 완성됩니다. 마지막 조각이 들어갈 때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조각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지난 2천년 동안 온 이방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뻗어 나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한 비밀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구원의 완성 - 예루살렘의 회복 -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 할 때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는 이유 중의 하나는 구원을 너무나 평면적이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는 영적인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구원도 받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정신적인 모든 부분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은 이처럼 총체적이고 전인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한 부분만을 이야기 할 때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다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내 삶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구원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또한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구원도 있고, 온 인류의 구원, 우주적인 구원도 있습니다. 이 구원의 전체적인 드라마를 이해할 때 부분적인 내 삶의 구원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목적이 생기고 방향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 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온 인류의 구원의 핵심에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비밀이 된 이름

25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저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총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구원은 비밀스럽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면 비밀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은 입가에 미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는 하루 종일 미소를 짓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고백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비밀을 아는데, 내 사랑하는 민족, 골육의 친척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이스라엘의 실패는 엄청난 비밀이다! 이 비밀을 깨달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형제들아 저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기 쉽다. 구원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다 아는 것 같고, 다 얻은 것 같지만, 실제로 아무 것도 얻은 것이 없다. 참 지혜는 비밀을 깨달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열린 문을 찾으라

그러면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총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같은 조상도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귀신의 이름만 불렀던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성경도 없고,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약속도 없는, 캄캄한 그런 절벽 속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빛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이것이 25절에 나타난 비밀입니다.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사업이 잘 안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싶은 사람과도 결혼할 수 없습니다. 하고싶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문이 닫히는 것 같은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찢어딘가에 문이 열렸더라는 말과 통합니다. 문이 닫힌 것만 보는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열린 문을 보셔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기 위하여 문을 열어놓으셨고, 이방인들을 향한 문을 열기

위해 이스라엘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했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2천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를 거부합니다. 왜 그럴습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렛대로 물건을 들기 위해서는 지렛대 아래에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방인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전도를 하면 전도한 것만큼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를 심으면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선교사가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서 그 땅에 뼈를 묻습니다. 몇 사람 전도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축복하셔서 수천, 수만 명, 수백만 명이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이것이 선교의 역사입니다. 2천년동안 복음은 이렇게 유럽과 미국과 전 세계로 가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섭리

25절을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선택받은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게하지도 않으시며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탕자를 찾으십니다. 타락한 자녀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총만한 숫자가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교회가 왜 2천명의 선교사를 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미전도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방인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정하신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숫자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천년 동안 찾으셨습니다.

저는 북한을 생각합니다. 중국을 생각합니다. 모슬렘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종족을 다 찾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 총만한 숫자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이 희생양처럼 희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실패는 나의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희생할 차례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보지 말고 성경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교회가 복을 받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죽을힘을 다해서 선교를 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영원히 희생시키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다시 찾으시고 회복하십니다. 26, 27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위하여 희생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방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방인도 사랑했다면 이스라엘을 왜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희생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따지고 대가를 받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켰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구원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 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2천년 동안 큰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건입니다. 그런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6,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나타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돌같이 딱딱한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구원은 끝이 납니다. 역사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대 드라마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죽였고,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복음으로 말하자면 원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28절에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그들이 비록 복음을 거부했고, 복음을 죽였지만, 복음과 원수된 관계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들이 얼렁뚱땅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매맞지 말고 점잖게 하나님

개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로 자란 아이는 절대로 하나님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대개 목사, 장로 아들이 망나니 짓을 잘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땅에 쏟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사랑과 배신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는 가끔 아주 가까이 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그럴줄 몰랐어.”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후회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말인가? 그토록 잘 대해 주었던 것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신했습니다.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내 배신과 함께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하고 실패하고 배신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배신당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자식이 잘못되었을 때 부모는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그렇다고 부모가 자식을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유대인의 마음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갔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 눈물을 흘립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는데 자기 민족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울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니까?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도까지 남의 자식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긍휼을 주셨는데 하물며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에 대하여 후회가 없으십니다. 결혼해서 한참 살다가 “내가 잘못 선택

한 것 같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선택한 것은 정말 축복이야”라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실수였어”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목자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탕자가 돌아오는 것, 자기가 사랑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흔 아홉 마리의 양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찾으러 다니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한 마리 양의 가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양한마리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 목자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양이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지 양의 가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것은 나 한사람 구원받았다고 해서 큰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꺼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어주신 것입니다.

32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구원의 완성은 여러분의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고 합시다. 왜 그 사람 중에 나를 택해서 그 가족에게 가게 하셨습니까? 그 가족 전체를 구원하라는 사명 때문입니다. 왜 한국 전체에 복을 주셨습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이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32절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 변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 민족이 변할 것입니다. 저는 이 민족이 변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 말씀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찢기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오늘 저희들이 이 구원의 감격을 되새기면서

성만찬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

<http://file.onnuritv.com>